

vol. **33**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공동행

GYEONGNAM MECE N A T



Cover story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개막공연 <다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전국의 연극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연극축제가 '연극, 그 해맑은 상상'을 슬로건으로 밀양에서 열렸다. 긴 시간 단절되었던 배우와 관객들이 연극제 다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반갑게 마주했다.

별 좋은 밀양에서 연극인들의 열정과 관객들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발행인 최홍영
발행일 2022.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행 손수나, 강세영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GYEONGNAM

MECE N A 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 vol. **33**

Contents

메세나 칼럼	04	문화공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시작된다
스페셜 테마	08	예술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동행	12	예술의 가치를 지켜 나가다 — (주)화인테크놀로지 × 코리아드리밍신포니에타
	16	예술후원의 선순환, 가장 '메세나'다운 만남 — 모브 클래식 × 경성오페라단
메세나 인터뷰	20	고속도로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심다 — 차동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24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TIMF —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스페셜 인터뷰	28	뜨겁고도, 특별했던 22일간의 연극축제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밀양
포토포엠	32	Forget-Me-Not Pond, 캐나다 알버타 by 김정민 작가
문화공간	34	경남의, 경남에 의한, 경남을 위한 전시공간, 경남갤러리
	36	쉼표에서 느낌표로, 남해각
	38	장인의 손에서 피어난 조선 왕조 꽃을 만나다, 한국궁중꽃박물관
메세나 소식	40	2022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41	2022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실시
	42	경남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
	43	경남메세나 문화나눔사업
	44	전국 메세나단체 워크숍_부산
	45	ESG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인조이 컬러	46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48	사포의 꿈
	50	이극로의 한글사랑 이야기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입법조사관

문화공영은 共榮

문화정책을 연구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까지, 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해 진땀을 흘리곤 했다. 연구실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윤석열 당시 당선자의 문화정책을 검색해보지만, 정보가 없었다. 대선 과정에서 문화정책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짐작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팬데믹 기간에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문화예술인들인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이 이름을 떨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인데,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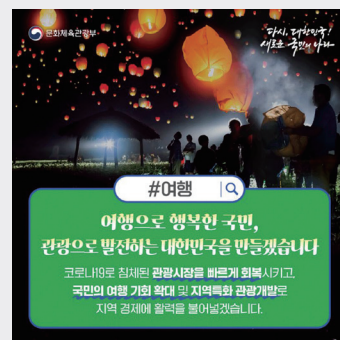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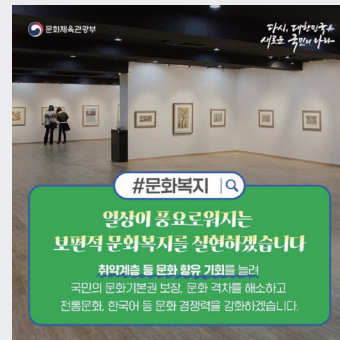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마침내 문화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국정과제를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것과 비교해보자면,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 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함께 세우고 있다. 차이를 하나만 꼽아보라면, 전통문화에 대한 국정과제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국정과제가 반갑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문화공영(文化共榮)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었다. 영(榮)이 꽃이 핀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가 온 세계에 꽃피리라는 기대를 담은 표현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공영이라는 말이 공존과 함께 쓰이는 만큼 문화공존에 대한 계획도 담겼으면 어땠을까 싶다. 국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커지고 문화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문화공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화공존으로 행복한 국민, 문화공영으로 커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문화공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국정과제에서 크고 작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다.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조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위태롭다.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적금급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4년 5,273억원에 달하던 것이 2017년 545억원까지 줄었다.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되면서 일반회계 및 타기금에서의 전입이 늘어 1,5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재원구조가 취약한 것은 여전한데, 기금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팔길이 원칙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공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예술활동은 다른 활동과 달리 창의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창작의 자유가 존중되고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의 배제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화정책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단체이며 합의제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기금을 맡기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배분토록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강조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지키는 길이다. 기금 확충 없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금 때문이기도 하다. 예산과 달리 기금에는 민간출연이 가능하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경남메세나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기금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다. 만약 기금이 기부금으로 채워지고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면, 기금운영의 자율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택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다 보면 예술작품의 내용에까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부금 기반의 기금이 절실하다.

1.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카드뉴스]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https://blog.naver.com/mcstkorea/222730779551>
2. 제20대 대통령실,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new_view.php?code=160920&sno=72&opt=&id=people&search_item=&search_keyword=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미 검토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재정학회, 2020)¹⁾. 첫째, 기존 조세 수입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관련 수입의 부가가치세를 기금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둘째, 문화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 순수예술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 문화예술산업, 예를 들면 공연 사업 수입을 대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산업, 가령 담배판매에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세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이 공식 채택된 바 있으며,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세 수입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유사 사례로, 프랑스 정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제품 판매 가격에 문화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기존 방안들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세금을 부담하는 이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금 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금의 활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있다. 이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에 사용하는 방법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이 있다.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이것 역시 이해관계가 있어 쉽지 않은 것을 것이다.

몇 가지 방안을 더 고민해볼 수 있다. 우선 복권기금 활용 방안이다. 현재도 복권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복권은 사행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기여도 측면에서 역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복권기금의 사용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전입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지원 사업에 투입할 수 없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입금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고 있다. 복권기금을 창작지원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2011년부터는 작품 설치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출연이 기대만큼 많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주를 강제하다 보니 수준 낮은 작품들이 설치되는 일이 많은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술작품 설치 허가 기준을 대폭 높여 수준 높은 작품 설치를 유도하고,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면, 기금의 재원 확충에 상당히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지역문화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함께 확충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이용하여 문화향유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단위에서의 창작지원과 지역단위에서의 향유지원이 조화될 때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문화진흥기금 논의도 시작되었으면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타 기금의 법정 전입을 위한 법령 일부 개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있지 않다. 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 간혹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대안들은 충분히 제시되었고,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없이는 문화공영은 불가능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회계 전입도 고민해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계속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회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문화예술계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 미국의 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은 10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한국재정학회. (2020).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문화예술의 메타버스 세계

예술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남상훈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교수

문화예술 분야의 메타버스

2020년 10월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이 GTC에서 “메타버스(Metaverse)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2021년 10월에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産)·학(學)·연(研)·관(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활동의 제약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확장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2007년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가속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울 세계,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울 세계는 디지털 트윈과 같이 현실과 복제된 공간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영국, 헬싱키에서는 시범도시를 디지털화하여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라이프 로깅은 개인의 생체 및 미디어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게 된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거울 세계와 연동되어 분석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와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스마트 안경에 증강하는 기술이다. 디즈니에서는 현실 공간에 다수의 이야기 세계를 연결한 메타버스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있다.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게임이나 확장현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앞의 세 종류의 특성들은 현실 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가상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계속 융합되고 있어 15년 전의 분류체계로 현재의 메타버스의 산업 형태를 분류하기는 힘들다. 또한, 각 분야에서 접근하는 메타버스의 방향에 따라 정의 및 형태는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규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메타버스

: 가상세계에 사람이 참여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

moonshin



moonshin



moon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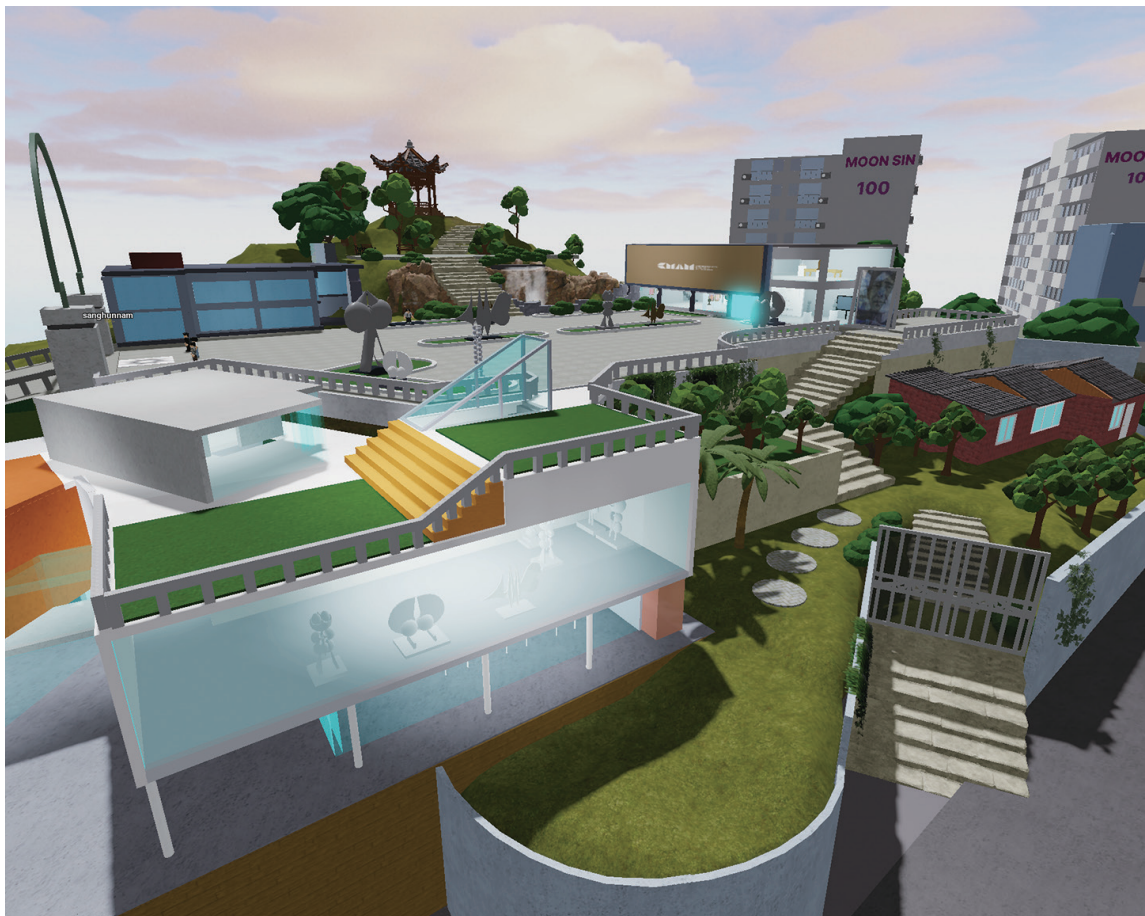
moonshin



moonshin



art & metaverse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 사람이 참여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는 현실 세계와 연결성을 최소화한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거울 세계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부터 시작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가 참가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메타버스 공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교육분야에서도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직종에서 일할 인력의 배출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의 일환으로 메타버스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행했던 2개의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 메타버스 문신 미술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21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메타버스 경남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상남도와 연관된 메타버스 공간을 자유주제로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진행되었다. 메타버스 주제는 2022년 문신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와 시간적, 공간적인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 메타버스 문신 미술관’으로 기획하였다.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와 MBC 경남 D크리에이티브팀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15명의 학생과 함께 제작하였다. 학생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재미있고 간편하게 메타버스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방법으로 로블록스, 제페토, 게더타운과 같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도 환경 제작 및 상호작용 설정에 가장 자유도가 높은 로블록스를 선택하였다. 창원시립문신미술관과 유사하게 사실적인 메타버스 미술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공간을 탐색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구글 맵의 등고선 지도를 참고하고,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Terrain Editor를 사용하여 지형을 생성하였으며, 각각의 전시관을 지형에 맞춰 건물의 크기 및 비율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미술관의 조각 작품들도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배치하였다.

문신 작가의 사진을 참고하여 여러 개의 아바타를 제작하였으며,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로블록스 내에서의 문신 선생님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가상의 로블록스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이미지 및 조각 작품 설명은 창원문화재단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문신 작가와 관련된 내용은 창원문화재단의 검수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제작된 로블록스 문신 미술관은 현재 누구나 참여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재는 창원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moonshin 100th anniversary

metavers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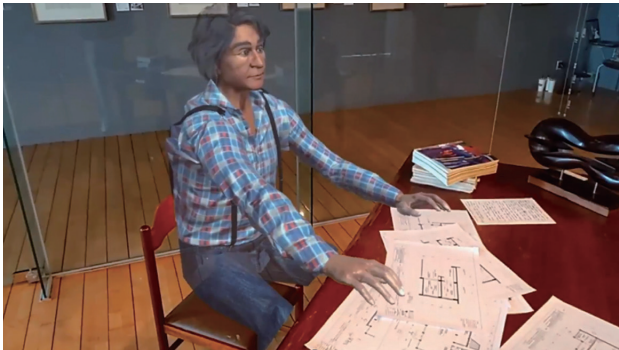


문신탄생 100주년 확장현실 문신 미술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디지털 휴먼 연구실(Digital Human Lab)과 MBC 경남 D크리에이티브팀과 공동으로 기획되었으며, 디지털 휴먼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확장현실 기술은 가상/증강/혼합현실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기술이다. 현실 속에 가상의 정보를 증강함으로써 물리적 제약이 있는 현실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상의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시각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확장현실 장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 장비를 사용하였다. 홀로렌즈 2는 깊이 센서와 이미지 센서를 통하여 공간을 스캐닝함으로써 바닥, 벽, 책상과 같은 물체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어도 현실 공간과 융합된 가상의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다.

기획된 내용은 문신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신 작가의 작품과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인 문신시립미술관에 작고하신 문신 작가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문신 작가의 아바타를 제작하기 위하여 문신시립미술관에서 제공해준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신 작가의 신체 정보를 활용하여 아바타의 모양을 만들고, 청바지, 체크무늬 셔츠, 멜빵을 중요 부분으로 하여 3D 모델링을 하였다. 아바타의 몸에는 뼈대를 심어서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신 아바타가 현실 공간에 증강되는 위치는 작가가 그린 그림들과 작업할 때 사용했던 책상이 전시된 원형 미술관으로 설정하였다. 문신 작가가 원형 미술관에서 자연스럽게 산책하기, 관람객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설명해주기, 과거에 작업하던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작업을 생각하기의 스토리보드를 설정하였다. 모션캡처 장치를 사용하여 스토리보드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저장하였으며, 유니티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아바타, 애니메이션, 상호작용 부분을 적용하여 홀로렌즈 2에서 작동 가능한 확장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문신시립미술관의 협조를 통해서 휴관일에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 메타버스의 방향

로블록스를 활용한 사례에서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가상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구축하였으며, 확장현실을 사용한 사례에서는 현실 공간에 다양한 아이디어 세계를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속성 있는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한 회사가 정한 일률적인 규칙과 목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를 이루어나가고 자연스럽게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야지만 지속성을 갖는 메타버스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주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 입학식, 지역축제, 채용설명회 등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벤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은 필요 때문에 생성되고 만나는 공간으로 끝나게 된다. 메타버스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지속성을 갖는 지역문화 공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문화 공간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지역문화와 관련 있는 산(産)·학(學)·연(研)·관(官)·민(民)이 관심을 두고 협력해야만 한다. 메타버스는 초월한 세계를 뜻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필요성을 느끼고 협력해야지만 가능하며, 하나의 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메타버스 공간에 사람들이 방문하여 메타버스 내의 문화를 만드는 자율성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문화예술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참여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활성화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며 자유롭게 도전하고, 주위에서 많은 지원과 응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extended Reality

예술의 가치를

지켜 나가다

어머니와 아들 같은 매칭 파트너

(주)화인테크놀리지의 서영옥 대표와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허준 음악감독과의 만남이 있던 날, 진주에서 멀리 양산까지 땀 흘리며 찾아 준 허준 감독을 맞은 서영옥 대표의 첫 마디는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였다. 그리고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어주며 아들 대하듯 스스럼이 없다. 허준 감독 역시 ‘어머니 같다’고 한다. ‘덥다, 고생한다’ 챙겨주면서 ‘잘해봐라’ 잔소리도 하고 ‘잘했다, 좋다’ 기쁘게 칭찬하는 모습이 그랬다. 서영옥 대표가 ‘예매해놓은 음악회가 있으니 시간 되면 가자’ 하니, 바로 스케줄을 확인한 허준 감독도 ‘네, 좋습니다’ 흔쾌히 바로 가겠다 약속한다. 어쩐지 정감 넘치는 모습이다. 후원하고 후원받는 매칭 파트너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

(주)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대표 “믿음직스럽잖아요~”

존경받는 사업가로 꼽히는 (주)화인테크놀리지의 서영옥 대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클래식 연주 단체들은 거의 다 꿰고 있는 음악 애호가이다. 아니 연주자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애호가를 넘어서 전문

때 이른 더위가 극성이던 지난 5월 말, 3.15아트센터 소극장 무대는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웠다. 우리 지역 전문 실내악단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의 제19회 정기연주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열린 연주회였기 때문이었을까, 연주자들의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힘이 넘쳤다.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로 이들에게 힘을 보내는 (주)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대표가 오늘도 어김없이 관객들 속에 함께였다. 3년 전부터 이어져 온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와 (주)화인테크놀리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한다.

(주)화인테크놀리지

FINE TECHNOLOGY

가에 가깝다. 음악뿐 아니라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단체에 후원금을 기꺼이 내곤 있지만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처럼 짝을 정해서 후원한 곳은 처음이다. 경남대학교와의 인연으로 허준 감독을 알게 된 서영옥 대표는 “회사로 찾아와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더라고…” 이렇게 허준 감독과 인연을 맺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허준 음악감독 “걱정 없이 연주했던 3년”

2019년 (주)화인테크놀리지와 인연을 맺은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서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예산 문제로 거의 1년 동안 다른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연주했고, 또 1년은 연주가 없다시피 해서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하고 감사하다. 매칭 후 15회부터 19회까지, 5번의 정기연주회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최근 3년 동안 음악을 걱정 없이 연구하고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우리가 함께 연주하고 싶은 실력 있고 유능한 연주자를 모셔서 협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단원들에게 좋은 연주 경험을

✓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허준 음악감독

✓
(주)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대표

×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KOREAN DREAM SINFONIETTA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덕분에 연주의 질도 높아지고 덩달아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의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의 수준도 더 높아졌다. 연주할 때마다 너무나 좋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허준 감독이 요즘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음악은 우리를 힐링… 가치 있는 역할”

학창시절부터 연극, 방송, 음악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서영옥 대표는 그래선지 예술에 대한 안목이 남다르다. 특히 공장 한편에서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어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클래식은 물론 마당극 같은 공연까지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양산의 어곡산업단지, 비슷비슷한 느낌의 공장들 사이에서 남다른 공간을 품은 건물이 바로 ㈜화인테크놀로지이다. 화인의 ‘인송(仁松)갤러리’와 공연장 ‘프론티 아트홀’은 서영옥 대표가 몇 년 전 새롭게 공장을 지으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다. 예술단체에 대한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이렇게 갤러리, 공연장 같은 별도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직원들에게 더없는 힐링 공간이다.

“음악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은 일하고 난 뒤에 그 힐링을 책임져주는 사람들이죠. 정말 가치 있는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그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죠.”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그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영옥 대표의 신조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

허준 감독은 서영옥 대표가 베토벤 같다고 말한다. 음악가로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특히 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할 때 많은 사람이 교향곡에 합창을 삽입하는 걸 굉장히 의아해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신념대로 초연해냈고 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서 대표님은 지역의 안타까운 문화예술 지원 수준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으시죠. 그리고 또 스스로 음악을 좋아하고 공부하시면서 발전 가능성 있는 곳에 여러 방면으로 과감히 투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느낍니다.”

66

냉철하지만
따뜻한
베토벤 같은
후원자

베토벤으로 인해 고전 시대에서 낭만 시대로 변화했듯이 잠재 가능성을 믿고 독심 있게 관심과 노력을 쏟는 서 대표의 모습과 함께 또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지휘자 없는 실내악단… 연주자가 주인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는 2010년 창단된 실내악단으로 지휘자가 없는 게 특징이다.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리더가 되어 대화와 소통, 연습을 통해 곡을 완성해 간다. 처음엔 어떤 기업의 후원이나 메세나의 매칭도 없이 자립으로 운영됐다. “단원 각자가 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습을 토대로 모든 연주의 주인이 되고 또 단체 소속감도 높이는 거죠. 그런 가족 같은 유대감이 10년 넘게 우리 단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같아요.” 한차례 세대교체를 통해 2019년부터 리더를 맡게 된 허준 감독은 특유의 독심과 믿음으로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를 이어갈 생각이다. 연주단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이런 허준 감독의 모습이 서영옥 대표는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매칭 펀드로 만들어지는 두 번의 정기연주회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허준 감독과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의 연주자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우리 경남에도 이렇게 잘하는 연주 단체가 있다, 이 정도는 한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한 번 인연을 맺은 연주자가 다른 공연을 하게 되면 꼭 주변 지인들을 모두 끌고 와 함께 관람하며 힘을 준다. “정말 안목이 남다르시고 높기 때문에 서 대표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긴장되고 떨리죠.

그래도 그게 또 힘이 돼서 단원들도 더 잘해야 한다. 힘내자, 으샤으샤 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허준 감독. 따뜻하지만 냉철한 시선으로, 냉철하지만 차갑지 않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 예술단체를 지켜봐 주는 서영옥 대표의 시선은 그래서 참 고맙고 힘이 된다.

힘들어도 함께 가는, 가치를 지키는 행복한 동행

코로나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는 찰나, 모두가 고물가로 또 힘이 드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어느 기업이 쉽게 운영되고 경영될 수 있겠는가? 허준 감독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단체가 ㈜화인테크놀로지에 받는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죠. 음악이 필요하고 음악을 원하는 곳에 어디든 찾아가서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단원들 또한 너무 행복”하다고 전한다. “우리도 어렵죠. 절반 이상으로 매출이 줄었는걸요.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건 또 해야죠.”라고 말하는 서영옥 대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행복감과 만족감,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한 힐링, 그 예술적 가치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앞으로도 지역 예술단체와 동행하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말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가족처럼, ㈜화인테크놀로지와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의 행보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꽃길이 펼쳐지리라.

66

음악이
가치로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죠



1. 2022년도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상반기 임원 워크숍의 서영옥 대표(좌)와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공연 모습(우)
2. (주)화인테크놀로지 내 전시 공간, 인송(仁松)갤러리
3.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정기 연주회

예술 후원의 선순환,

가장 ‘메세나’다운 만남

MOV CLASSIC

모브 클래식 × 경상오페라단

GYEONGSANG OPERA COMPANY

지난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내 최고 오페라 축제인 ‘제13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렸다. 그 가운데 5월 6일부터 8일까지 무대를 장식한 경상오페라단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는 단연 훌륭했다. 경남지역 오페라단으로는 최초였다. 경남지역 오페라계의 경사였고, 지역 오페라단의 위상을 보여준 쾌거였다. 경상오페라단의 성공적인 무대 뒤에는 경상오페라단의 공식 후원사이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맡아 진행한 ‘모브 클래식’이 있었다. 지역 오페라단의 저력을 보여준 모브 클래식과 경상오페라단의 아름다운 동행을 따라가 보자.

√
경상오페라단 단장
경상대 최강지 교수



√
모브 클래식
김기경 의장



모브 클래식 김기경 의장

“시작은 ‘클래식 마케팅’이로소이다”

“원래 저는 외국에서만 한 20년 플랜트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심플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브 클래식 김기경 의장, 그가 국내 사업으로 눈을 돌린 건 코로나 때문이었다. 아버지 고향 합천에서 호텔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호텔을 알릴 남다른 마케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였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싫었다. “얼굴 조금 알려진 연예인들이 사진만 몇 장 딱 찍어서 ‘어서 오세요’ 하는 식인데 우리 지역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애정도 없고, 늘 하던 대로 모델비로 그렇게 몇억씩 주고 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후배를 통해 경남지역의 예술단체를 소개받았고, 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단장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가 됐다. 마침내 ‘호텔과 클래식’이라는 제법 잘 어울리는 조합을 찾아낸 것이다.

“본사도 양산이고 호텔은 합천에 있는데 경남지역에

서 클래식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된 거죠. 1억으로 공연 하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매칭에 매칭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서울, 양산, 창원까지 이어서 공연을 6개나 하니깐, 이보다 훌륭한 마케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단장

“가장 ‘메세나’다운 귀인을 만나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선 기업 역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기업 홍보비 중에서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비용은 그중에서도 늘 1순위가 되곤 한다. 지역의 예술단체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친분이나 부탁, 때로는 읍소로 이번에 우리가 꼭 공연을 해야 하니깐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일회성이죠. 연속적으로 지원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단장. 모브 클래식 김기경 의장을 만나 클래식 단체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메세나라는 걸 전혀 모르고, 매칭펀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가 너무나 메세나의 취지나 명분에 딱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예술단체를 도우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메세나의 취지나 명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시고 진짜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술단체 입장에서 정말 귀인이죠.”



“실력 좋은 아티스트가 곧 홍보대사”

올해 2월 양산에 본사를 두고 만들어진 모브아트센터, 여러 사업 가운데 ‘모브 클래식’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단연 이슈다. 경남지역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오케스트라 멤버를 포함해 30여 명의 아티스트를 정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 실력 있는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정직원으로 마음껏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 빛을 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었다.

“모브에 소속된 실력 좋은 연주자, 성악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홍보대사인 거죠. 그들이 멋진 무대를 만들었으면 화제가 되고 누구 아무개가 모브 소속이다 하면 모브가 어디고 뭐 하는 곳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연주자가 모브 로고가 붙어 있는 굿즈, 오브제를 쓰고 있으면 또 그렇게 알려지고… 저절로 마케팅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모브 클래식이 후원하는 경상오페라단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무대를 장식했고, 서울뿐 아니라 경남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공연하며 후원자이자 동반자인 ‘모브 클래식’의 존재를 직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소극장 오페라로 경쟁력 높인다”

경상오페라단은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이다. 2014년 최강지 교수가 경상대학교로 임용돼 오면서 본격적으로 경남에서 활동하게 된 오페라단이다.

최근 한국예술문화위원회에서 소극장 지원사업에도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됐다. 음악 분야에선 딱 4개 팀만 선발되는데, 경남에선 경상오페라단이 뽑힌 거다. “그동안 조금씩 다른 공연장을 운영해왔던 노하우가 있죠. 저희가 2016년부터 해오던 명연주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 사업비를 통해서 경남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명연주 시리즈까지 3가지 카테고리리를 계속 공연할 계획이에요.” 소극장 오페라는 경상오페라단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경상오페라단은 얼마 전 진주에 ‘경상오페라 센터’를 개관했다. 3층은 연극, 무용, 뮤지컬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1층은 클래식 극장 전용 홀로 운영하고 있다.

양산 모브아트센터에서도 소극장 오페라를 공연할 계획이다. “양산 지역 인구가 30만 명이 넘지만 예상외로 예술단체가 없어요. 모브가 거점이 돼 줄 거예요.”

1.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공연 모습

66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2.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공연 모습
3. 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단장과 모브 클래식 김기경 의장

66

써야 할 돈을
쓸 뿐인데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 후원의 선순환

모브 김기경 의장은 좀 더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다. 경상오페라단이나 모브가 후원하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게 되면 ‘모브’에 소속된 단원들이 몇 명 들어가서 공연하게 되고, 그럼 자신이 후원하는 비용 일부가 출연료로 다시 모브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선순환이죠. 내가 만든 식당에 직원들이 와서 밥을 먹는 그런 느낌이지요. 마케팅은 보통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비용인데 마케팅 치고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마케팅 전략인 셈입니다.”

김기경 의장의 생각은 이렇게 투자된 공연을 영상으로 잘 남기고, 남겨진 영상을 사람들이 찾아보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게 또 연주자와 모브로 수익이 돌아오고, 또 그걸 활용해서 다시 무대를 만드는 것까지 닿아 있다. 예술계에 마치 벤처 투자를 하는 식으로 예술가 한 명에 투자했던 돈이 10배 정도 다시 벌어들이게 된다는 게 그의 계산. “저는 사업가입니다. 철저한 사업적 관점에서 하는 일이지만 단지 그게 지역문화와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써야 할 돈을 쓸 뿐인데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

예술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 모브 김기경 의장이 생각하는 사업 모델이 만약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면 지역 예술인에게도, 기업 입장에서든 좋은 일이다. 메세나와 손잡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하니 경남메세나 협회 입장에서도 매칭 펀드 파트너로 대환영이다. 그래서 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단장은 이 일에 어떻게든 예술가로서 손을 보태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움이 되려 애쓴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가를 만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

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CEO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귀인이죠. 귀인…” 이렇게 경남 예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 예술계에서는 없었던 일, 두 사람 모두 좋은 선례가 되고 발상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모브와 함께, 경남 오페라 선도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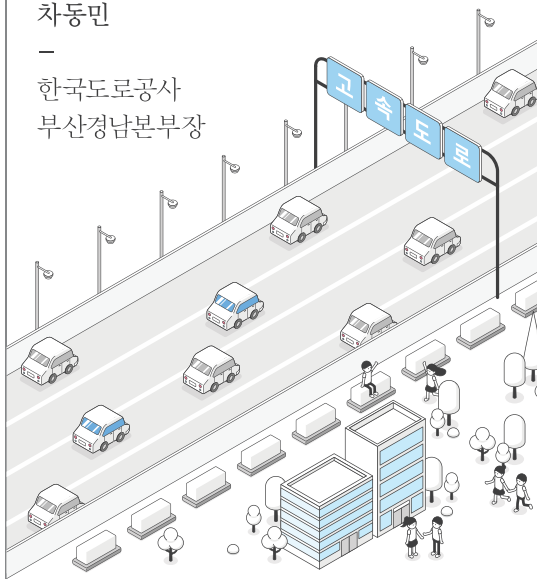
김기경 의장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계획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은 그에게는 음악하는 가족도 있고 또 그 역시 한때 음악을 했으며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사실 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라서 좋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을 우아하게 쓰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든든한 후원자이자 좋은 멘토를 얻었다는 최강지 단장은 “저도 함께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양산에서 이렇게 기업이 후원해주니 수월하고요. 서부 경남엔 경상오페라단이 있고 중부엔 경남오페라단이 있고 또 동부엔 모브가 거점이 돼서 경남지역 오페라를 선도하면 어떨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클래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술 후원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거라는 김기경 의장. 소극장 오페라로 지역 오페라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만들어가는 최강지 단장. 두 사람의 만남과 멋진 협업이 만들어낸 하모니가 지역 예술계에 얼마나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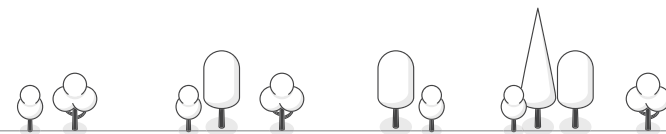
고속도로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심다 -

차동민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고속도로가 변하고 있다. 딱딱하고 무채색이던 고속도로 주변으로 푸른 숲이 자라고, 알록달록 벽화가 그려지는가 하면, 귀여운 왕눈이 캐릭터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고속도로의 이야기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 예술적 감성까지 더해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의 차동민 본부장을 만났다.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다

차동민 본부장은 1991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올해로 31년째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위해 애쓰고 있다. 본사 홍보실장을 역임한 후 2021년 말 부산경남본부장으로 취임해, 동쪽으로는 부산, 울산, 경주, 서쪽으로는 사천, 함양까지 670km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부산경남본부를 총괄하고 있다.

“언제나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후 ‘ESG 경영 혁신’을 업무 방향으로 설정한 것도 기업을 운영할 때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함께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 바람을 담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남해고속도로 2지선 율하 나들목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메타세쿼이아 등 수목 15,000주를 식재하여 도로 주변의 지역을 한층 쾌적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2022년 12월 말 완공 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부산경남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커피 잔여물을 활용해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 지역 농가에 기부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본부장실에 들어서면 정면에는 부산경남본부 전체 노선도가 펼쳐져 있고, 왼쪽에는 사각지대 없이 고속도로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상황판이 돌아가고 있다. 책상 위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보고서와 안전 관련 책자들이 놓여 있다.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 본부장은 언제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고속도로 위에서의 사건·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차 본부장의 최우선 목표가 교통안전인 것도 당연하다.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OECD 10위 수준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상위 5개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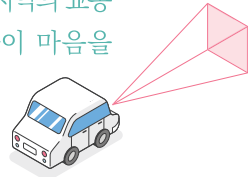
2

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사옥 전경
2. 남해고속도로 2지선 율하IC 인근 미세먼지 차단 숲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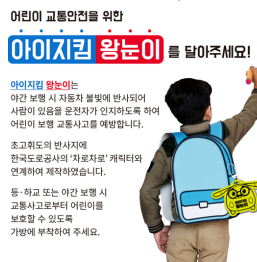
“취임 후, 기존의 ‘잠 깨우는 왕눈이’에 색깔을 입혀 운전자들의 눈에 띄기 쉽게 만들고, 왕눈이의 초고휘도 반사¹⁾ 기능을 차로차로²⁾ 디자인에 접목한 ‘아이지킴 왕눈이’를 개발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 서약’ 캠페인을 열었어요. 참여자 1명당 1천 원씩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교통 피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의 의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산경남본부 관할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2년 7월 말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명이 감소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걷다

교통안전과 더불어 차 본부장이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이다. 6월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지킴 왕눈이’와 ‘투명우산’을 제작하여 관내 약 1,200명의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며,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알렸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아이지킴 왕눈이를 달아주세요!

아이지킴 왕눈이는 야간 보행 시 자동차 불빛에 반사되어 사람이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초고휘도의 반사지에 한국도로공사의 '차로차로' 캐릭터와 연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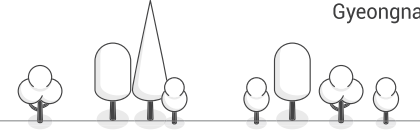
등·학교 또는 야간 보행 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방에 부착하여 주세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지역민들의 교통안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부산경남본부는 매년 명절이나 연말연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직원들이 매달 소액을 기부하여 만든 ‘해피펀드 기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다. 1년에 3회 정도는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과 협력하여 직원들이 헌혈행사로 모은 헌혈증을 기부하는 활동도 10년 이상 지속해오는 등 부산경남본부는 꾸준히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1) 어떤 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는 양을 ‘휘도’라고 말하며, 초고휘도는 그 빛의 양이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한국도로공사의 캐릭터 중 하나로 미래형 자동차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3. 부산경남본부에서 시작된 ‘잠 깨우는 왕눈이’
4.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키는 ‘아이지킴 왕눈이’



지역 문화예술의 손을 잡다

올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경남메세나협회 결연기관으로 참여한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지역과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가 곧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는 뜻이 담겼다.

“신문을 읽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 전시 등이 감소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힘들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한 후원 방법을 알게 돼, 협회에 가입하여 ‘벨라미치예술단’과 결연했어요.”

지난 5월에는 차 본부장과 직원들이 창원성산아트홀에서 열린 벨라미치예술단의 ‘리어왕’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메세나협회에 가입을 하고 벨라미치공연단과 결연한 이 인연들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이라 사기업과 달리 예산의 사용에 제한이 많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여건이 되는 한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에 작은 기여라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 본부장이 메세나 활동에 관심을 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는 평소에도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거나 미술관에 방문하는 등 문화예술 감상을 즐기는 편이다. 본가가 서울이라 주말이면 출퇴근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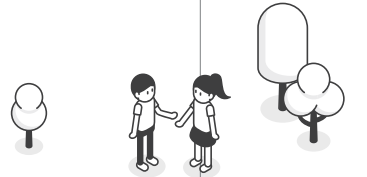
“공연이나 음악 등 문화예술을 접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건물 내부의 벽에 미술 작품을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속도로 유지·관리라는 정형화된 업무 속에서 작품을 보며 잠시 휴식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색깔도 화려하고 밝아 내부 분위기도 한결 환해졌다고들 합니다.”

문화예술의 힘을 전하다

차 본부장의 문화예술 사랑은 부산경남본부 고속도로에도 새로운 싹을 틔웠다. 기존에는 현수막이던 과속금지 홍보물을 사람의 형상을 닮은 ‘실루엣 피켓’으로 바꿔 주목도를 높이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잠 깨우는 왕눈이’를 달아 소소한 재미를 전하는 식이다. 고속도로 하부 통로 박스에 벽화를 그려 무채색이던 고속도로에 색깔을 더하기도 했다. 고속도로에 문화예술적 감성을 더해 고객에게 한결 친근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객들에게 고속도로가 한결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화예술을 통해 느꼈던 위로와 행복을 고객과 지역에 전하고 싶습니다.”

5. 벨라미치예술단 오페라 <리어왕> 공연모습



5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TIMF

TONGYONG INTERNATIONAL MUSIC FOUNDATION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새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때로는 웅장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흐른다. 매년 봄, 이곳 통영 도시 곳곳에는 음악이 넘실거린다. 세계 유수의 음악가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오롯이 음악을 말하고 즐기는 통영

국제음악제의 풍경이다. 음악제는 어느새 지역을 넘어, 문화예술을 넘어 다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를 만나 통영국제음악제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물었다.

통영국제음악제 20주년 ... 사회적 혁신의 사례

1

4월 3일 통영국제음악제가 20주년의 막을 내렸다. 2002년 처음 시작된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팀프(TIMF) 아카데미 등 통영에 다양한 음악 콘텐츠의 뿌리를 내렸을 뿐 아니라, 2015년 통영이 국내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에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축제 그 자체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진은숙 작곡가가 예술감독으로 함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객석 거리 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총관람객 1만여 명(객석 점유율 85%)에 티켓 수익 2억 2,500만 원을 기록하며 착실히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로서의 위상을 쌓아왔다.

6월 29일에는 통영국제음악제의 20주년을 축하하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에게 도착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을 수상한 것이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등 세 분야에서 창의성을 통해 혁신적인 기여를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의 수상은 윤이상을 잇는 새로운 작곡가와 음악가를 발굴하고 현대 동서양 음악문화를 잇는 가교로 역할을 한 것이 주효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문화예술 분야인 줄 알았습니다. ‘사회 분야’라고 적힌 공문의 표기가 오류라고 생각했을 정도죠. 사회 분야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왜 사회 분야일까 고민했어요. 아무런 음악적 인프라 없이 오히려 지역적 한계, 현대 음악의 확장성에 대한 의문 등 선입견만 있던 상태에서 시작해,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제’라는 표현이 부끄럽지 않은 축제가 됐으니, 그 자체로 사회적 혁신을 일군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음악제의 지속성을 위해

통영국제음악제의 20년은 이 대표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제1회 음악제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통영국제음악재단의 대표에 취임했으니, 이 대표의 삶이 곧 음악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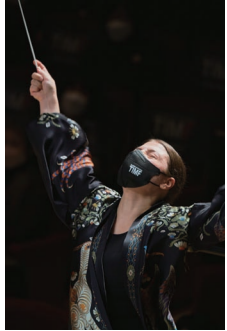
그는 원래 통영의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며, 2000년대 초 유일한 통영의 음악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를 겸직했다. 그러던 중 통영국제음악제 초대 사무국장인 김승근 교수를 만나 음악제에 합류했다.



2

1. 지난 3월, 관객과 마주한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2. 통영국제음악제 2022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

3



“-----
2003년 음악제와 경남국제음악콩쿠르¹⁾를 치르고 김승근 교수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음악제며 콩쿠르며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많았죠. 창원에서 콩쿠르 수상자 공연을 하고, 숙박지에서 밤새도록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음악제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사명감에, 2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무국장이 되고 보니 음악제 준비하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열악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이상 한두 번 만에 스러지는 게 아니라, 계속될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었어요.”

주위의 수많은 음악제가 한두 해 개최 만에 문을 닫았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음악제를 지속할 힘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첫 회 개최에 이어 2003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004년 팀프 아카데미 등 시즌제 콘텐츠를 파생상품으로 선보인 이유다. 이어 통영국제음악당과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해 기반을 탄탄히 했다. 그 덕에 음악제는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
직원들이 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도 많았죠. 첫 시작을 함께한 김승근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초창기 음악제를 준비할 때 지금은 경남메세나협회를 설립·운영 중인 경남은행의 사회공헌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통영국제음악당을 지을 때 박성용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립에 나서 주셨죠. 이제는 저희가 메세나협회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과 아이덴티티 지켜야

어느새 통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음악인들에게는 익숙한 지역이 됐다. 음악제나 콩쿠르는 물론,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통영을 찾는 음악인들이 늘었다. 또한, 2014년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연례총회, 2015년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센터연합회(AAPPAC) 연례총회, 2016년 국제현대음악협회(ISCM)의 세계현대음악제 등 세계 주요 음악 총회가 통영에서 열리며 명실상부 통영은 음악의 도시가 됐다.

“-----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고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진정성과 아이덴티티라고 대답해요. 윤이상 선생님을 기리고 그 음악을 사랑하는 정신을 나누고 싶다는 진정성을 갖고, 외부 환경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원래 경남국제음악콩쿠르였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3. 2022 TIMF 개막 공연, 지휘자 달리아 스타쎙스카
4. 2022 TIMF 디오니소스 로봇 with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5. 2022 TIMF 폐막 공연, 소프라노 박혜상

4



5

이 대표는 통영국제음악제(TIMF)라는 이름에 힌트가 모두 있다고 말했다. 통영에서의 시작을 잊지 않고, 국제적인 음악축제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한 채 묵묵하게 걸어왔다는 뜻이다.

“-----
특히 중요한 건 팀프에서도 에프(F)라는 글자인데, 축제(Festival)이자 재단(Foundation)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출발점을 나타내면서 현재를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역과 함께하며 재단의 역할을 해나가야죠.”

다음 20년을 위한 준비

이제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새로운 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자신적인 음악제'를 표방하 20년을 위해 준비 중이다.

미래를 꿈꾸 있게 '세계'며 다음 하는

“-----
‘세계적인 음악제’를 목표로 준비하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해야죠. 그 흐름 중 하나로 최근 코로나19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 했어요. 현장에서 즐기는 것과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공연 질의 차이가 있으니, 보완할 점들이 많죠. 하지만 4~5만 명 정도가 접속한 것을 보면, 이런 시도들이 더 많은 분과 만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활용해야죠. 또, 콩쿠르도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는데 목관 악기 종목을 추가하여 변화를 시도하려 구상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예술의 전당과 추후 수상자 콘서트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교향악단과 협연을하기로 협약해, 콩쿠르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물론, 올해 11월에 열린 콩쿠르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그는 음악제, 콩쿠르와 같은 축제를 잘 이루어나가는 것 못지않게 재단 내부를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재단도 처음 대어섯으로 시작해 이제 50여 명이 넘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축제도 즐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드는 이도, 참여하는 이도 행복한 축제를 다음 세대에까지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뜨겁고도, 특별했던 22일간의 연극축제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밀양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경남 대표로 참가한 극단 현장의 〈나는 이렇게 들었다〉

2022년 7월, 밀양의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고 감동적이었다.

40돌을 맞은 대한민국 연극제가 이곳 ‘해 맑은 도시’ 밀양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7월 8일부터 30일까지 장장 22일 동안 펼쳐진 여름날의 연극 이야기가 도심을 해 맑은 상상 속에 빠져들게 했다.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고 열기로 가득했던 밀양의 7월...

그 축제를 준비해온 경남연극협회의 숨은 주역 4인방 고능석 집행위원장, 김은민 밀양연극협회 지부장, 제상아 기획경영국장, 최동석 사무처장을 만났다.



THE 40th
KOREA THEATER
FESTIVAL
MIRYANG

연극인들의 축제, 밀양에서 열리다

1983년 전국연극제로 시작된 대한민국 연극제가 올해 마흔 번째 무대를 밀양에서 올렸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 연극인들이 화합을 기반으로 서로 경쟁하며 결속을 다지는 전국 유일의 연극인들의 축제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연극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연극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밀양으로 모여들었다는 의미이다.

왜 ‘밀양’인가라는 물음에 고능석 집행위원장(경남지회장)은 “밀양은 해마다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펼쳐지는 연극 인프라가 상당한 도시입니다. 연극을 사랑하는 도시죠. 밀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기도 했고요.”라며 연극이라면 단연 ‘밀양’이라고 답했다.

밀양에서 오래 연극무대를 만들어 온 김은민 밀양연극협회 지부장은 또 다른 기대도 하고 있다. “과거의 좋지 않은 일로 밀양의 연극인들에 대한 오명이 큰 것 같아요. 지역에서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됐고 지역 연극계가 위축됐었는데, 이 대한민국 연극제를 계기로 연극 도시 밀양으로 다시 새롭게 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레 전했다.

22일간 펼쳐지는 대한민국 연극제는 16개 시도지회를 대표하는 극단들의 경연을 중심으로 주제공연, 포럼,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가장 중심이 되는 무대는 각 시도에서 선발된 대표 극단들이 펼치는 본선 경연이다. 경남에선 지난 3월 함안에서 열린 제40회 경남연극제를 통해서 단체 대상을 받은 진주 극단 현장의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경남지회 대표



연극도시 밀양

로 본선 경연의 첫 번째 날 무대를 장식했다. 조선 후기, 한양의 한 시장통에서 구경꾼들에게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낭독가 ‘전기수’를 다룬 작품이다. 대한민국 연극제 전체를 준비하면서 또 경연 무대까지 준비해야 하는 경남지회지만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연극제에 자신감이 넘친다.

사전홍보관부터 프린지 무대, 공모전 등

다양한 볼거리 가득

밀양 남천강변에 자리한 해천야외공연장 곁에, 지난 4월부터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 in 밀양〉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홍보관이 운영됐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물론 경남 연극제의 역사를 전해주는 포스터가 3면의 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공간, 각 극단에서 만든 연필, 컵, 티셔츠 같은 기념품과 그간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집까지 40여 년 쌓아온 경남 연극인들의 열정과 피땀이 고스란히 묻어 나는 전시공간이다. 직접 꾸민 홍보관에는 그간의 경남 연극의 모든 성장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자료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포스터 일체, 작은 물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경남연극협회 소속 연극인들이 손수 붙이고 챙겼다. 이곳의 전시품들은 연극제 기간에는 ‘상상 그 세상의 전시’라는 이름으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에서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는 대한민국연극박물관 밀양 유치를 위한 기획 전시이기도 하다.

개막공연에는 역사와 신화가 넘치는 밀양의 이야기를

담았다. “해맑은 상상의 도시 밀양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최동석 사무처장은 “역사에 밀린 신화, 과학에 밀린 믿음이 밀양에서는 힘을 갑니다. 밀양은 한여름에도 골짜기에 얼음이 얼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비석이 땀을 흘리고, 물고기가 굳어 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라며 개막공연 〈다시, 동지선달, 꽃 본 듯이〉에 “연극, 그 해맑은 상상”이라는 연극제 주제를 담았다고 말한다. “연극이란 사람 앞에서 사람이 풀어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해맑은 상상이 가능한 밀양에서 사람, 이야기, 연극의 힘으로 만나는 거죠.”

이외에도 본선 경연은 물론 다양한 프린지 무대와 희극 공모전, 차세대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가 22일간 밀양을 더욱 뜨겁게 했다.

경남 연극인들의 단합으로 차별화된 연극제 만들기

이번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특별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연극제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경남 연극인들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났다.

첫 번째 특별함은 사전홍보에 있다. 경남 도민들에게 대한민국 연극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연극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달 전인 6월부터 경남 곳곳에서 ‘미리 보기 공연들’을 무대에 올렸다. “밀양에 오면 이렇게, 아니 이보다 훨씬 재밌는 무대들이 많습니다, 알리는 거죠. 축제니까요 주민들과 같이 즐겨야죠.”

두 번째는, 지역민들이 홍보대사가 된 거다. 전국에 걸쳐 11개 가족을 미리 선발해 밀양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를 개인 SNS 등을 통해 미리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 가족들의 참여와 활약은 ‘대한민국 연극제 in 밀양’의 가장 특별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폐막식 무대는 지난 40년간 그 어떤 연극제에도 없던 무대이다. 미리 선발된 4가족 15명이 연극제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주말마다 모여 연극 연습을 했다. 연극의 ‘O’자도 모르고 무대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이들이 하나하나 연극을 몸으로 체험하고 배워가면서 만들어 낸 폐막식 무대는 다시없을 특별함으로 남는다.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을까?



군데 연극제를 가보면 오히려 경남은 너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단니까요. 자기 집같이 잘 해주니까 감사하죠.”라고 진담 가득한 농을 보탠다.

경남 연극인들의 단합 비결이 뭘까 궁금하다. “경남은 모두 잘 뭉치고 사이가 좋습니다. 연극제 준비로 각자 더 바빠졌지만 그럼에도 이 대회를 위해 모두 마음을 쓰고 있죠. 모여 있으면 한 극단 식구인 줄 알아요.” 자랑을 보태는 고능석 집행위원장이자.

최동석 사무처장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끊임없이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렇게 깊이 접근해 볼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럼 진행은 어디서 해보자, 착착 착 되는 거죠. 특히 밀양 여기는 20대 초반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즘 트렌드나 주류도 확인해 보고 서로 협업이 다 잘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단합 비결을 말한다.

“특특 던지면 뭐가 하나 만들어지고, 제가 기획자지만 서로 잘 받아서 그걸 또 새로운 걸 만들어 주시고… 궁합이 잘 맞아요.”라는 제상아 기획경영국장의 말에도 서로 간의 신뢰가 물론 묻어난다.

경남 연극무대에 늘 함께 꾸준히 동행해 주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경남메세나협회를 ‘천사 같은 동반자’라고 말하는 경남의 연극인들. 단일 극단과 일대일 매칭이 기본이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연극제로 집중 지원이 됐고, 도움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밀양=연극도시’라는 공식 만들고 싶어

경남은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 in 밀양〉을 통해, ‘밀양 = 연극도시’라는 공식을 만들어 낼 참이다. ‘여름에 밀양에 가면 연극을 하더라. 연극 하면 밀양이지’ 하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우리 연극 보러 밀양 한번 가볼까’ 하고 언제든지 밀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라는 게 경남연극협회의 바람. 이는 밀양시의 의지와도 이어져 있다. 대한민국 연극박물관과 아카데미를 밀양에 유치하는 것이다.

고능석 집행위원장은 “외형적으로는 큰 축제를 치르고 나면 계속 그 지역의 연극 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데요, 우리 밀양에는 공연예술축제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국립 연극박물관이나 아카데미 쪽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경남뿐 아니라 한국 연극협회 쪽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곳이 또 경남 연극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최동석 사무처장도 “전국에 있는 해들이 모이는 거 아닐까, 교통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여러 여건들이 좋아지면 ‘밀양이 연극의 메카’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40회를 맞은 대한민국 연극제 in 밀양을 통해 또다시 해맑은 상상을 더해가며 새로운 연극무대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연극인들. 마지막으로 경남의 연극인으로 십수 년 살아온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왼쪽부터 고능석 집행위원장, 최동석 사무처장, 김은민 밀양연극협회 지부장, 제상아 기획경영국장



김은민 밀양연극협회 지부장

“이제 시작이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치유됐으면 좋겠고,
밀양 연극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다시 좋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상아 기획경영국장

“경남 연극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마 경남 연극이 전국에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돼요.”

최동석 사무처장

“직업이 뭐예요.
연극 배운데요, 하면
아주 희한한 사람 보듯이 해요.
아직까지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은데 독보적이긴 하죠.
연극 한 편 본다는 게
영화 보듯이 조금 가까울수록
좋겠다는 희망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이죠.”

고능석 집행위원장

“연극에 대한 오해가 2가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다. 서울이 잘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한 번도 서울팀이 상을 못 받았습니다.
연극제를 통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극단과 연극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FORGET-ME-NOT POND, 캐나다 알버타

by 김정민 작가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실력 있는 작가들의
서울 전시 기회 제공

경남의, 경남에 의한, 경남을 위한 전시공간

전통과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 서울 인사동
... 작가라면 누구나 진출하고 싶은 꿈의
무대 인사동 거리에 오로지 '경남'의 작가
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있다. 이름도 '경남
갤러리'... 2019년 경상남도가 도내 예술
인들에게 서울에서의 전시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오로지 '경남의, 경남을 위한,
경남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서울 인사동
에 자리한 경남갤러리로 가보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41-1
(인사아트센터 제5전시실)

📞 경남갤러리 02-735-7077
경남미협 사무국 055-289-7077

서울 전시의 벽은 높았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날이 때론 맞다 싶을 때가 있다. 좀 더 큰물에서 놀고 싶고, 한편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은 작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혹자는 그럴지도 모른다. '마음이 그렇다면 왜 못하나 서울에 있는 아무 전시관이든 잡아서 전시회 개최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말은 정말 한 번도 서울에서의 전시를 계획해 보지 않은 작가이거나, 돈 걱정 없이 사는 작가일 것이다. 지역의 작가가 서울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울 전시의 벽은 높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시공간, 또 하나는 그곳 사정에 밝은 전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 지역 대부분의 작가는 두 가지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2020년 1월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개관 중앙무대 진출을 위한 교두보

이런 작가들의 고민을 모아 경상남도과 경남미협에서 드디어 오래 숙원 해결에 나섰다. 관련 조례와 행정절차를 마친 경상남도는 기존에 성황리에 운영 중이던 여러 갤러리들을 후보에 놓고 심사한 결과, 가장 적절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의 갤러리와 계약했다. 그리고 운영수탁기관 모집 과정을 거쳐 경남미협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월 경남 작가 전용 갤러리인 <경남갤러리>가 서울 인사동에 정식 개관한 것이다. 경남미협에서는 "서울 인사동은 대한민국 미술의 심장부로 지역 작가에게는 이곳에서 전시를 여는 게 큰 경력이고 중앙 무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된다"로 설립 취지를 밝혔다.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김종영, 문신, 전혁림, 박생광을 이을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만족도, 호응 점점 높아져

작가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참여하겠다는 작가들도 만족도가 높았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대관 신청이 개관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에 총 14번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코로나 상황이었던 2021년에도 22회, 또 올해 2022년에도 예정돼 있는 전시까지 모두 더하면 총 29회에 달한다. 경남 지역 작가가 알려지면서 전시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타지에서 조우하는 '경남' 관람객에겐 뜻밖의 선물

낯선 '타지'에서 익숙한 이름을 마주하는 그 반가움은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경남갤러리와 조우하게 된 날, 게다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관람객들에겐 이렇게 깜짝 선물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꾸준히 경남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더라' 주변에 알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우리 경남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들에 대한 제안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예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경남 작가들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게 목표. 지역 미술 발전에 경남갤러리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역의 예술가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이길

2023년 대관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진행예정이며 경남미협 홈페이지(www.gnar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경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서울 전시를 꿈꿔볼 수 있다.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라면 특히 더 환영이다. 경남을 대표하는 작가로 서울에서 전시되기 때문에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이 확정된다. 경남갤러리가 실력 있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로 다가갈 수 있길 바라본다.



심포에서 느낌표로, 남해각

남해각은 원래 먼 곳에서 남해를 찾아온 이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시 쉬거나 하루를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숙박업소이자 휴게공간이었다. 여행객들의 여독을 풀어주던 그곳이 오랜 세월을 지나 남해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남해의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담은 아카이브부터, 남해 관광을 위한 준비물까지 꼭꼭 눌러 담은 남해각으로 향한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품은 공간

남해각은 1973년 6월 22일 개통한 남해대교와 연계하여 건설된 휴게공간이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¹⁾인 남해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생겨나면서, 남해각은 그들에게 쉴 공간을 내어줬다. 이후 노량대교가 놓이며 유희공간이 되었으나, 그 상징성과 의미 때문에 2019년 재생을 시작했고 2021년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푸른 노랑해협을 가로지르는 남해대교를 건너자마자 하얀 외관에 초록빛으로 ‘남해각’이라 적힌 건물이 반긴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전망대까지 총 4개의 층으로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 남해각이다.

1층으로 들어서면 남해각 아카이브 자료들을 전시한 ‘기억의 예술관’이 열린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 친구들과 수학여행으로, 가족여행으로, 또 신혼여행으로, 저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연을 품은 얼굴들 뒤로 묵묵히 선 남해대교에서 지나는 세월이 느껴진다. 이어 남해대교를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이 통창 너머 남해대교와 어우러지고, 중앙의 쇼케이스에서 숙박요금표, ‘여관방 없음’ 팻말, 방 열쇠 등 손때가 그대로 묻은 남해각의 물건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옛이야기부터 문화공간으로 나아갈 새로운 시작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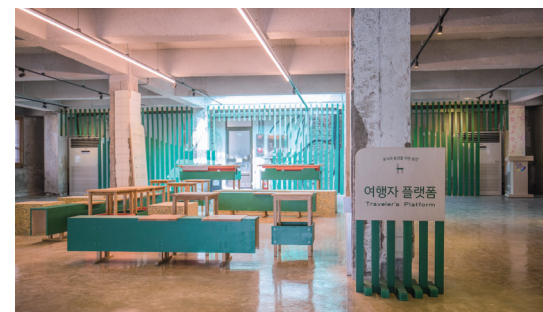
2층은 전시와 회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는 옛 남해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깨진 타일 벽이나 색 바랜 벽지, 녹슨 창문에서 그때 그 시절을 엿볼 수 있다.

1) 양쪽 언덕에 줄이나 쇠사슬을 건너지르고, 거기에 의지하여 매달아 놓은 다리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새로운 남해를 만나는 출발점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남해관광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남해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콘텐츠들과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안내데스크에서 남해의 캐릭터 ‘해랑이 손거울’과 ‘남꾸맵’을 잊지 말자. 손거울은 남해관광플랫폼과 연계한 맛집, 카페 등에서 할인 쿠폰으로 쓸 수 있고, 남꾸맵은 남해의 7개 권역별 관광사업체를 이용한 뒤 받는 랜드마크 스티커로 지도를 꾸미는 DIY 지도 키트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나가는 완성하는 재미가 있다.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다면 ‘랜덤 캡슐 뽑기’를 돌려보자. 캡슐 안에는 해랑이 스티커와 추천 여행지가 적혀 있어, 자신에게 꼭 맞는 여행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인생샷을 찍기 위한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와 ‘사진 무료 인화’ 이벤트도 진행하니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
남해의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담은
남해각
”



플랫폼 한가운데는 남해를 주제로 한 판매용 굿즈들이 모여 있다. 남해의 특산물인 종려나무, 유자, 감성돔 등을 활용해 만든 개성 있는 제품들이 있다. 그 자체로 아기자기해 보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남해를 간직하기 좋은 기념품들이다. 또한, 공간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어 방문객이 머무르기에도 좋다. 이곳에서 잠시 쉬며 여행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본 후 전망대에 오르자 남해대교와 자연이 한눈에 들어온다. 탁 트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원한 바닷바람에 실려 오랜 시간 남해대교를 건너 이곳을 오갔던 이들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바람이 다가오는 듯하다.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

🕒 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문화해설사 상주

한국
궁중꽃
박물관

장인의 손에서 피어난 조선 왕조 꽃을 만나다

자연 염료로 색을 입힌 비단과 모시를 한 잎 한 잎 오린다. 그 조각들을 다림질하여 잎마다 송화나 밀랍을 입혀 모양을 빚으면 비로소 채화 한 송이가 피어난다. 조선 시대에는 궁중에 큰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 이 채화로 궁궐을 꾸몄다. 기록으로만 남았던 조선 궁중의 꽃이 경남에 피었다. 양산 한국궁중꽃박물관에서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궁중채화를 만났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품은 궁중채화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조선 왕조 궁궐 내 경사가 있을 때 내부를 장식했던 궁중채화를 주제로 한 궁중 꽃 전문 박물관이다. 채화란 비단이나 모시로 만든 가화(假花)를 일컫는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화를 꺾는 대신 채화를 만들었다고도 하며, 왕조의 영원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들지 않는 채화를 사용했다고도 전한다. 궁중채화 문화는 일제 강점기 때 명맥이 끊긴 뒤 기록으로만 이어 오다, 황수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장이자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자에 의해 제작·복원돼 한국궁중꽃박물관에 전시됐다.

입구에 들어서면 황수로 장인의 아호를 딴 상설전시실인 수로재가 반긴다. 오랜 시간의 고증을 거쳐 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한옥 건물로 팔작지붕의 양쪽 누각이 늠름하게 서 있다. 돌계단을 오르면 고종정해진찬의가 재현된 제1전시실이다. 1887년 1월(고종 24)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의 팔순을 기념하여 개최된 궁중 대향연의 풍경을 전하는 박물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음식, 향아리 등 곳곳에 장식된 채화뿐만 아니라 단청부터, 매듭, 음식까지 내부 구석구석 각 분야 장인들의 손길이 닿은 작품은 조선 궁중 문화의 수려함과 화려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잔치상 양옆을 지키고 서 있는, 2천 송이에 달하는 오얏꽃(자두꽃)이 피어난 홍도준화와 벽도준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제2전시실 ‘납매’에서는 이덕무의 ‘윤희매십전’을 바탕으로 제작된 윤희매를 만날 수 있다. 꽃잎은 벌집 밀랍을 녹여 만들고, 꽃술은 사슴 털에 송화가루를 묻혀 만든 윤희매는 전시실의 벽을 가득 메운 영상과 어우러져 마치 눈발에 홀로 피어난 듯

고고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어지는 제3전시실과 제4전시실에는 특별기획전 ‘에밀갈레-Art of Glass 꽃으로 피어나다’전을 운영 중이다. 꽃을 품은 유리공예 작품은 색다른 매력을 전한다.

비해당은 총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특별기획 전시실이다. 제1전시실은 순정효황후 장지마을 내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에서는 궁중 채화 및 문화와 관련된 기획 전시가 열려 궁중채화 문화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
양산 매곡리
푸른 자연 속
조선 궁중의
꽃
”

다양한 즐거움의 공간



궁중채화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한국궁중꽃박물관은 공간 자체로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틈이 되어준다. 양산 매곡리의 푸른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이고, 이어 잘 가꾼 조경을 따라 조성된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맑은 공기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특히, 놓칠 수 없는 볼거리는 수로재와 비해당을 지나 달는 폭포 정원.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씻겨나가는 기분이다.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아트샵도 마련돼 있다. 깔끔하게 꾸민 내부에 앉아 통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기고, 전시관을 둘러본 감상을 나눠봐도 좋겠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은 궁중채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쉽게도 2022년 교육·체험은 8월로 마감되지만, 매년 초 한국궁중꽃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한 해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잊지 말고 미리 확인하자.

📍 경남 양산시 매곡외산로 232

☎ 055-362-3661

🕒 전시 해설

수-금

: 10:00, 11:00, 13:30, 14:30

토, 일, 공휴일

: 10:00, 11:00, 13:30, 14:30, 15:30

월-화

: 휴무

※ 사전 예약 후 관람

1

2022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경남메세나협회
2022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목)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개최되었다.

메세나라는 선한 영향력

협회는 2021년 사업결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예술단체 175개 팀 결연이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정기탁 후원을 포함하여 약 37억여 원이 예술단체에 지원되었고 그 결과 도민과 지역사회에 예술로 희망과 위로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회는 9년 연속 100개 팀 이상 결연은 물론 역대 최고의 결연 성과를 거두었다. 최홍영 경남메세나협회장은 이러한 성과는 예술의 가치를 믿고 지지해 주신 메세나 기업인들의 마음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2년도 기업과 예술단체 180개 팀 이상 결연 다짐

협회는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김해시에 이어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등 도내 주요 거점도시들의 참여에 힘입어 2022년도 기업과 예술단체 180개 팀 이상 결연 달성을 다짐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과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되었던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메세나 활동을 선도할 임원 재구성

이날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의 회장직 연임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최홍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경남의 황금시대를 열어 가는 데 메세나가 앞장서겠다”라면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인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화인테크놀로지 서영옥 대표이사가 협회 부회장으로 재선임되었다. 이사에는 (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이상호 회장,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 조보현 회장이 연임되었으며,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박성재 국장이 교체 선임되었다. 감사에는 청호산업(유) 이동기 회장이 유임되었다.

협회의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탬 신규 임원진으로는 부회장에 우수AMS(주) 김선우 대표이사가 선임되었고 이사에는 경남오페라단 이용순 이사장과 창원대학교 음악과 이주는 교수가 신규 선임되었다.



2

2022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실시

■ 올해도 중소기업 175개사와 160개 예술단체가 만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창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되는 <2022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메세나 펀드지원금을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에 개최된 사업 심사위원회 결과 중소기업 175개사(社)와 160개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었다.

예술의 ‘백신’ 효과 기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지역 예술계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보듬겠다는 듯 메세나 기업들의 관심과 후원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이에 힘입어 협회는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사업 시행 이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예술단체는 창작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거리두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온 예술이 발휘할 치유와 회복의 ‘백신’효과가 기대된다.

예술단체 워크숍 온라인 개최

지난 5월 협회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술단체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예술단체 실무 담당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 방법,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다. 해당 영상은 YouTube 경남메세나협회 채널에서 수시로 시청할 수 있다. 협회 사업 담당자는 “우편으로 배포된 가이드북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신규 결연 단체들의 경우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담당자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2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술단체 워크숍
QR코드로 영상보기



3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
하고자 하는 메세나 기업들의 통
큰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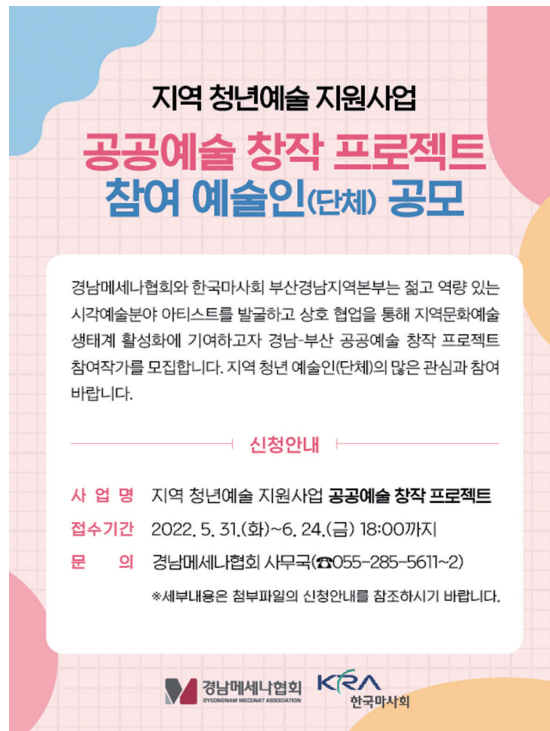
지난 6월 16일,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문화예술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LH가 경남메세나협회에 전달한 지원금은 도내 구석구석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리는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문화예술 ‘LH 아트 프렌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도 경남 곳곳을 문화예술로 물들일 ‘LH 아트 프렌즈’를
모집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LH 아트 프렌즈’는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경남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LH는 열악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 구축에 더 많은 힘을 보태
고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14개 예술인(단체)에 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예술과 함께 달린다, Let's Run, Let's Art!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시각
예술분야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과 예술의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에
게는 작품 창작을 위한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청년 예술인 간 매칭을 통해 제작되는 작품은 12월 전시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
이며 향후 한국마사회에 기증되어 지역 공공 기관, 시설 등에 배치되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될 예정이다.



4

함께 나누어 더 의미 있게, 경남메세나 문화나눔사업

문화나눔을 통해 더 행복한 경남을 가꾸어
가는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문화나눔사업 문의 | 055-285-5612

경상남도 경찰청과 함께, 행복한 나눔 음악회

봄꽃이 만연한 4월, 경남메세나협회는 경상남도 경찰청 직원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고자 헌신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
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가 준비한 이 음악회에는 경찰청 직원
200여 명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경남경영자총협회 이상연
회장, 창원상공회의소 구자천 회장 등 여러 내외빈이 함께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연주의 포문은 CWNNU 브라스 앙상블이 힘차게 열었다. 금관 특유의 웅장함과 화려
함은 공연이 열린 대강당을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이어 소프라노 정혜리와,
바리톤 김기환이 무대에 올라 우리 가곡 ‘꽃 구름 속에’와 ‘투우사의 노래’ 등을 열창
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경남메세나협회와 음악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경찰 가족들이 바쁜 업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졌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나눔공연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경상남도
사회복지인들이다.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이 닿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찬회가 개최되었다. 협회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가수 남승민을 초청하여 사회복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공연을 진행했다. 이 공연을
계기로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홍보대사로 위촉된 남승민은 향후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사업은 계속
해서 이어진다. 8월에는 한우리인성회가 주최하는 제30회 장애인 야영대회에 공연단
을 파견하여 평소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도 적극적
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5

전국 메세나 단체 워크숍

@부산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사)제주메세나협회
Jeju Mecenat Association

 세종시메세나협회
Sejong Mecenat Association

 부산메세나협회
Busan Mecenat Association


메세나 활동의 전국적 활성화와 지역 메세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22 전국 메세나단체 통합 워크숍이 지난 5월 27일~28일 이틀간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세종시메세나협회 그리고 작년도에 새롭게 출범한 부산메세나협회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의 운영 현황 및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문화 접대비 활성화 사업 ‘문화로 인사합시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 협력 문화공헌 사업으로는 17개 기업과 예술 교육 사업, 문화 나눔 사업, 문화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2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K-Art 음악분야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국제음악 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인 음악 인재들을 후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이 사업을 통해 총 4명의 연주자들에게 콩쿠르 출전 지원금이 전달되었는데, 이 중 반 클라이번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 참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제주메세나협회는 위드 코로나시대 일상 회복에 활력을 돋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을 통해 회원 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꾀하고 도내 음악 영재들을 대상으로 ‘예술 영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을 통해 제주의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에 지원한다. 올 연말에는 ‘탐라 국제 아트페어’ 개최에 메세나의 힘을 보탬 예정이다. 새로이 출범한 세종시메세나협회와 부산메세나협회는 올해부터 지역 예술지원 매칭 펀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A&B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각 단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메세나 활동의 지역 활성화와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ESG경영의 일환으로써 메세나를 홍보하기 위해 ‘ESG+MECENAT’ 캠페인을 공동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의 출범은 일부 지역의 개별적인 예술후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지역 메세나 단체 발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G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1 • 메세나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발산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 그 자체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술 본연의 인지적 가치와 예술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친환경 실현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2 •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 확대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창의성과 심미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존 추구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높입니다. 메세나활동은 지역사회와의 감성나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정서적 호의와 지지를 얻도록 돕습니다.

3 • 메세나는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문화적 소통을 가능케 하며, 문화나눔을 통해 소득·세대·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비차별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

문화예술은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가친화적 문화가 스며들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메세나기구인 AFA(American For the Arts)는 예술이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 •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증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정신활동이며, 예술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개인의 윤리성, 관계 건전성과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로 가꾸는 기업문화는 개개인의 윤리적 성숙을 통해 평판 위험, 인적 위험 등의 비재무 위험에도 대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 • 근로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영향

포춘이 선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는 직원 응답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문화예술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업신뢰도, 존중, 자부심, 동료애 등에 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직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6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구리 제련소의 폐기물로 인해 황폐화 되었던 일본의 나오히마섬은 베네세그룹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을 갖춘 문화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떠났던 어촌 마을은 지역 재건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세나활동은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과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메세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쌓은 차별화된 신뢰는 ESG 시대에 새로운 공급망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9 • 시민 에너지 독려

ESG 경영환경에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은 대단히 큼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예술의 메시지 생산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환경·사회 등급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 에너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의 파이를 키워 미래의 수익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0 •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밀레니얼 세대는 기업의 사회 기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메세나활동은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활동은 미래 자산인 4C(Creativ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를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수단입니다.

ESG 
MECENA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Mecenat

“창원 구석구석 여행하듯 비엔날레를 즐겨주길”

•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조관용 총감독

Q 주제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J 채널이란 건 어떤 이야기를 수신하기도 하고(듣고) 송신도 하는(들려주는) 거잖아요. 개개인이 그런 채널이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인간과 자연 모든 것들이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에서 구분 지을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면서 전체와 합일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죠.

Q 이 주제를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J 자연의 생태적 순환이 거기 내포돼 있습니다. 동시에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같이 맞물려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경계를 짓는 건 좋지만 자연의 생명체와 인간 터전이 과연 분리돼 있을까요? 창원이라는 도시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야기해야지 비엔날레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교류를 기본으로 문화적 편견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조각비엔날레이니까요.

Q 창원이란 도시가 마산 창원 진해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군요?

J 각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가 차이를 정확히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의 차이를 ‘아니다, 없다’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창원 마산 진해가 가진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이를 통해 통합해가는 거죠. 결국 하나로 통일된다는 건

1. 양정욱_대화의 풍경-저녁이 되면 말하는 것들_복합재료_1100x120x150cm_2019
2. Alicja Kwade_Hemmungsloser Widerstand_found stones, glass, mirror, corten steel_100x69x109cm_2021
3. 김윤철_태양들의 먼지 Dust of Suns_LPDS Solution, acrylic, aluminum, motor, microcontroller_260x150x100cm_2022_Courtesy of the artist. Photo by Roman März
4. Annsi Talu_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_wood,tree,plant light_6700x4200x2943mm_2022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가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이란 주제로 20개국의 해외작가를 비롯해 본 전시에 90명, 창작 오픈스튜디오에 50명 이상으로 총 1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조관용 총감독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핵심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1



3

이해입니다.

또 하나, 창원이 대한민국 어디 지방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다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처해 있는 상황과 내적인 상황이 다를 뿐인 거죠. 채널이라는 게 각 개인이고 전체와 하나 되는 이야기이고 전체가 각 개인 채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Q 올해 비엔날레의 특별함, 무엇인가요?

J 가장 특징적인 건 오픈스튜디오입니다. 말 그대로 창원 지역 작가들이 작업장을 열어놓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시민들도 여행하듯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가의 작업실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삶의 환경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비평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이번 비엔날레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여기 창원에 있는 오픈스튜디오 작가들이 창원 비엔날레를 이끌어가는 호스트입니다. 주인이잖아요. 호스트로서 국내에 있는 작가, 해외 작가가 오면 마중해서 서로 교류하는 주역이 될 겁니다.

Q 전시 장소도 다양해진다고요?

J 올해 비엔날레는 전시장소를 성산아트홀에만 국한하지 않았어요. 마산 창원 진해 일원에 다 있습니다. 마산 서항지구, 창동 예술촌, 진해 흑백다방, 진해 중원로터리로 확장했어요. 마산만 가도 바다가 있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장소를 확장한다는 건

동시에 체험과 이야기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도 5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창원 어딜 가도 곳곳이 축제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Q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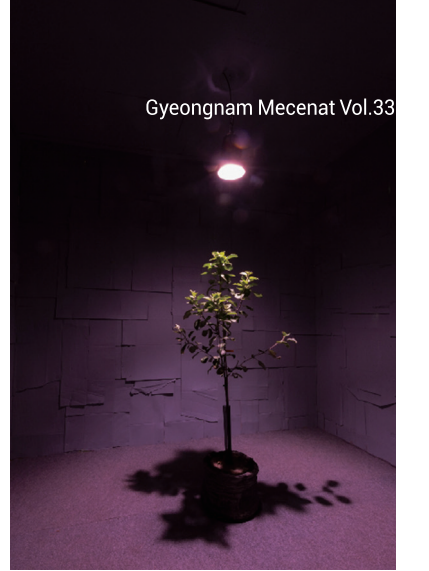
J 새로운 거니까 어려움은 그 안에 있습니다. 낯설다는 거... 관람하시는 분들도 낯설죠. 하지만 비엔날레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고, 오픈 스튜디오가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창작 오픈스튜디오가 활성화되고 창원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이 비엔날레를 주인처럼 함께 하시면서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Q 창원조각비엔날레에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메세나 참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J 지난 비엔날레 때부터 한국메세나협회의 지역 특성화매칭펀드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관심 있는 기업들의 크고 작은 후원들이 비엔날레 추진에 도움이 되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Q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

J 전시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와서 한번 보고 가기보다는 곳곳을 여행하듯이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작가분들과 대화하면서 해야 비로소 새로운 미술체험형식을 나누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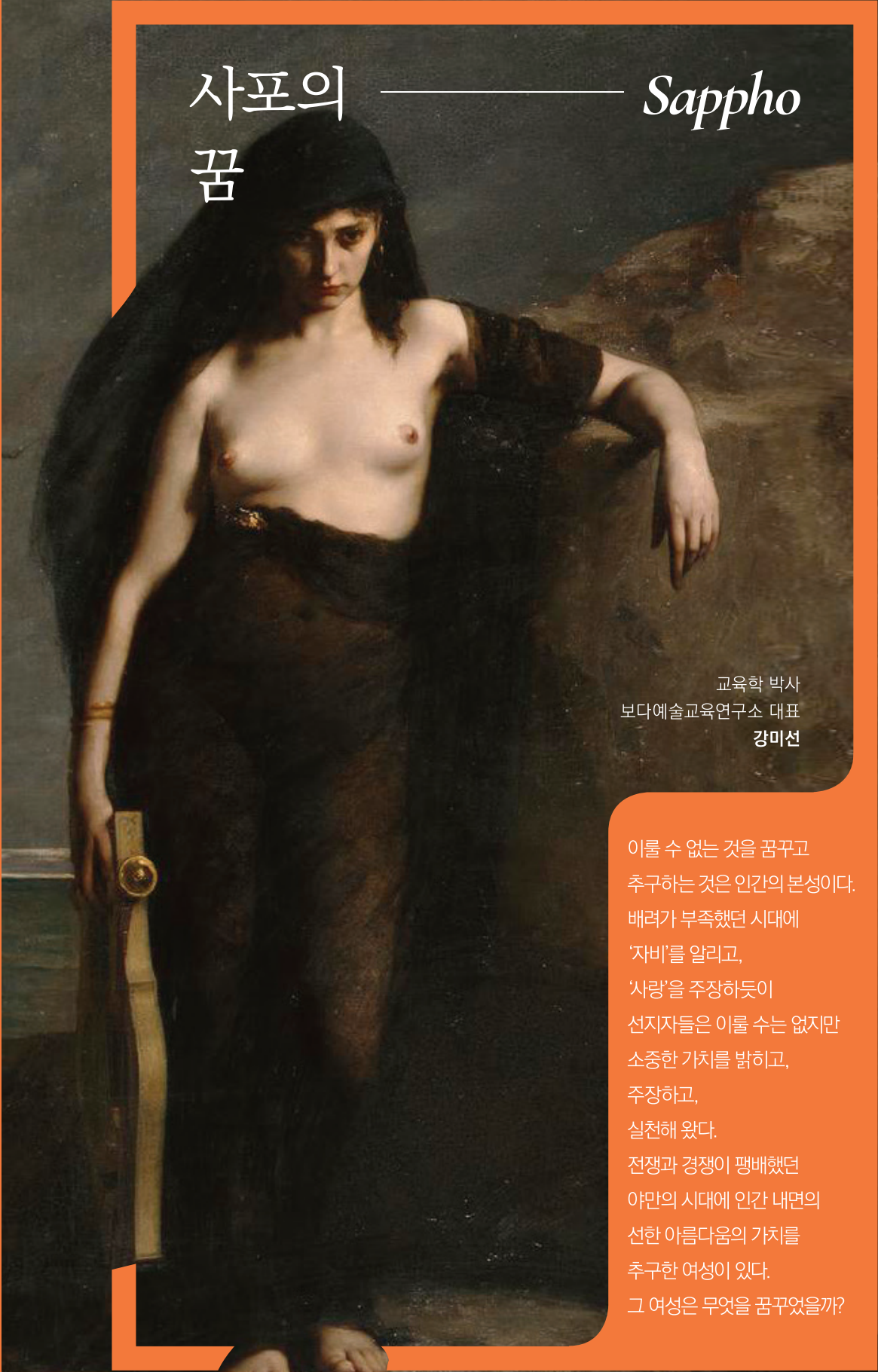
앞을 응시하고 있는 압도적인 눈빛, 한 손에는 시인임을 상징하는 악기인 리라를 들고 있다. 세계 최초의 여류 시인 사포.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여자로서 시를 통하여 자기 목소리를 처음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녀는 페미니즘의 상징이기도 하고 후대의 많은 시인들도 그녀를 사모하였다 한다. 그때의 시문학은 주로 영웅들의 일대기를 다루었으나 사포는 인간의 감정이 담긴 은밀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서정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에는 호메로스와 견줄 만큼 명성이 높았으며 플라톤은 사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학예의 여신들과 똑같이 열 번째 뮤즈로 칭송하였다. 9권의 시집을 편찬했으나 현재 거의 소실되고 부분적인 단편들만 전해져 오고 있다. 그 당시에는 시를 읽을 때 리라를 켜며 노래하듯 읊었다 하니 종합예술과 같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녀는 기원전 612년경 그리스 동부 에게해에 있는 레스보스섬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다. 레스보스섬 중심지인 남쪽의 미틸리니에 학교를 세우고 어린 소녀들에게 음악과 무용, 시를 가르쳐서 지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충실히 하였다. 레스보스섬은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고대 이 섬에서는 여성 간의 동성애가 성행하였다. 남자들은 전쟁으로 섬을 비우고 여자와 어린이들만이 섬에 남게 되었는데 남자들이 해야 할 힘든 일들도 여자들이 모두 감당하다 보니 서로 의지를 하면서 그런 각별한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어찌 되었든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레스보스 여인들의 사랑’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사포는 잘생긴 청년 어부 페온을 사모하여 상사병으로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는 말도 있고 늙어가는 자신을 한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바위 이름이 레프카다의 바위라는 말이 있다. 그림에서 기대고 있는 바위가 그러한 배경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화가도 사포의 삶과 죽음을 주제로 표현한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귀스트 망쟁이 표현한 사포의 그림을 소개한다. 열 번째 뮤즈라는 말이 어울리는 포스와 분위기가 뒤로 보이는 그리스의 망망대해의 아득한 배경으로 인해 돋보인다. 인간이라기보다 여신의 분위기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림에서 그로테스크한 느낌과 우울하고 어두움이 함께하는 낭만주의적인 미가 느껴진다. 좌절이 거듭되고 허무가 쌓이면 표정과 태도는 냉소적으로 변한다고 했던가? 감정과 이성이 해소되지 않고 평면적인 공간에서 공존하는 낭만주의적인 진정한 특성이 그림에서 배어난다.

사포의 그림에는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의 힘이 끌리는데 바로 여기에서 사포의 우울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지된 그녀의 시선은 흘러간 내 삶의 미묘한 뒷모습을 보게 한다.

사포의 꿈 Sappho



교육학 박사
보다예술교육연구소 대표
강미선

이룰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배려가 부족했던 시대에
'자비'를 알리고,
'사랑'을 주장하듯이
선지자들은 이룰 수는 없지만
소중한 가치를 밝히고,
주장하고,
실천해 왔다.
전쟁과 경쟁이 팽배했던
야만의 시대에 인간 내면의
선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한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무엇을 꿈꾸었을까?

그녀가 아름다움과 선함을 시로 읊은 칼로카가티아(Kalokagathia)를 여기 소개한다.

칼로카가티아(Kalokagathia)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고대 그리스어 아름다움(美)의 칼로스(Kalos)와 선(善)의 아가토스(Agathos)의 합성어이다.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고귀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하였으니 그것을 '선한 미'라고 표현한다.

〈칼로카가티아 Kalokagkthia〉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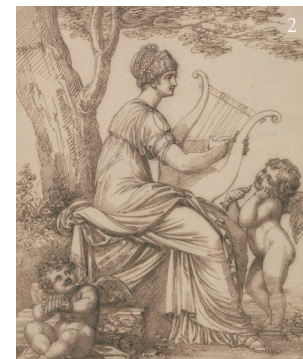
사포

어떤 이들은 기사단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보병이,
혹은 함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름답다.
그것을 모두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헬레네는
최고의 남자를 자신의 남자로 선택했다.
트로이의 빛을 꺼버린 사람,
그는 딸과 부모들을 잊어버리고 멀리,
아프로디테가 원했던 곳으로 갔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 아름답다.

선한 사람도 지금처럼 나중에도 변함없으리라.

1)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5, p.47.



샤를 오귀스트 망쟁이 표현한 사포 외에 다른 화가들이 표현한 사포의 모습 두 점을 곁들여 소개한다. 자본의 축적이 삶의 목표가 되고, 경쟁적 성장이 선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금, 사포의 꿈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싶다.

1 샤를 오귀스트 망쟁, 〈사포〉, 1867, 맨체스터미술관

2 마리아 코스웨이, 〈사포〉, 1826

3 구스타프 클림트, 〈사포〉, 1885-90

국어사전에서 '고루'는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고르게" 또는 "두루 빼놓지 않고"로 뜻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고루'는 평등을 의미하는 순수한글이라 하겠다. 이처럼 '고루'가 내포하는 평등의 의미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때,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맥이 닿아 있다. 이에 '고루'를 자신의 아호로 삼았던 사람이 있다. 바로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지는 이극로(李克魯, 1893-1978)이다.

'고루 사는 세상'을 염원한 평등주의자

이극로는 평등주의자로서 '고루 사는 세상'을 염원했다. 그렇게 그는 일제강점기와 광복기를 거치면서 조국의 독립과 수호에 앞장섰으며, 굳은 신념으로 우리말과 글의 연구와 보급에 헌신했다.

이극로는 「나의 이력서 - 반생기」에서 밝혔듯이, '고루', '물불', '동정(東正)' 등의 별호로 불렸다. 이 같은 호칭은 그의 됴됨이를 오롯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물불'은 조선어학회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다는 뜻으로서 불굴의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대변하고 있고, '동정'에는 동방의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건설하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널리 알려진 아호인 '고루'에는 세상을 고르게 하고 인류가 평등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다

이극로는 1893년 8월 28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827번지에서 아버지 이근주와 어머니 성산 이씨 사이의 8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에 마을 서당인 두남재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1910년 창원시 마산의 창신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신식교육을 받았다. 그후 20세 때인 1912년부터 1913년까지 그는 만주 봉천성 환인현의 동창학교에서 국어·역사·지리·수신 등을 가르쳤고, 1915년에는 만주 무송현의 백산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했다.

또한 이극로는 1919년부터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김두봉의 영향으로 한글 연구에 접어들었다. 특히 그는 1922년 독일의 베를린대학에 입학하였으며, 5년 뒤 1927년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파리대학과 런던대학에서 음성학을 연구한 후, 한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으로 1929년 1월에 귀국하여 조선어연구회에 몸담았다. 1931년 들어 그는 민족어의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단체인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개칭하여 한글운동의 기초과제로서 맞춤법 통일, 표준어의 사용, 외래어 표기법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1935년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 전임위원을 지냈다.

이극로의 이러한 행보는 국어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선생의 나라에는 국어사전도 없느냐?"라고 하는 바람에 창피를 느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40년 3월에 「조선말 큰사전」 첫째 권의 조판이 이루어졌고, 6월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했다. 이로 말미암아 1942년 10월 그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주모자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했다. 1945년 을유광복을 맞아 감옥에서 풀려난 이극로는 한글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그는 1945년 9월 조선어학회 간사장에 선출되었으며, 10월에 「한글노래」를 작성하여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1946년 6월 이승만의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건민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1947년 「조선말 큰사전」과 「고루 40년」을 발행

했으며, 1948년 3월 한글문화보급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렇듯 이극로는 나라의 국어교육을 확립하고자 한글전용운동과 한글보급운동을 전개했으며, 최현배·김윤경·정인승·이희승 등과 함께 조선어학회를 재건하여 대표로서 학회를 운영해 나갔다. 또한 그는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고자 사범 강습회를 열었고, 국어 교과서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1947년 4월 남북협상에 건민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북한에 잔류하게 되었다.

우리 말과 글 지킨 한글학자의 삶을 돌아보다

몇 해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말모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한 '말모이' 작업을 통해 국어사전을 만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극로를 모델로 삼았다. 실제 이극로는 조선어학회 대표로서 한글맞춤법통일·표준어 사정·외래어표기법 제정·한글지 발간 등 큰 업적을 남겼다. 물론 이 영화로 말미암아 이극로의 삶과 활동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고루 40년'의 파란만장했던 그의 행보는 영화보다 훨씬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다.

현재 의령군에서는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유치와 조성에 발맞춰, 이극로를 고향으로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그의 고향인 지정면 두곡마을의 길 이름을 아호인 '고루'를 따서 '고루로'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두곡마을에서는 '한글을 사랑한 독립운동가'라는 소개와 함께 이극로의 모습을 벽화로 그렸고, '고루로 3길'이라는 도로 표지판과 '고루 이극로 선생 생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런 만큼 이극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킨 한글학자로서 나라사랑을 실천한 자랑스러운 의령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李克魯의 한글사랑 이야기

경남대학교 의사소통교육부
한정호 교수



나라사랑을 실천한
한글학자
이극로



경남문화예술회관

2022 하반기 기획공연

패키지 최대 40% 티켓할인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
9. 23.(금) 19:30 / 9. 24.(토) 15:00



창무회 <춤, 그 신명>
10. 13.(목) 19:30



데이비드 러셀 기타 리사이틀
10. 18.(화) 19:30



음악극 <정조와 햄릿>
10. 21.(금) 19:30 / 10. 22.(토) 15:00



오페라 <토스카>
11. 18.(금) 19:30 / 11. 19.(토) 15:00



MOTI / 어디로부터
11. 25.(금) 19:30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
12. 3.(토) 15:00 / 12. 4.(일) 15:00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12. 18.(일) 18:00

3·15 ART CENTER

2022
하반기
기획사업

LINE UP

★★★ GRAND SEASON OPEN ★★★

SEASON
REPERTOIRE



≡ 엠티 오브 뮤직 vol.4 ≡
스페인과 칠레 음악 8. 31(수)



≡ 블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
기획전시 7.12 - 9. 21



≡ 신데렐라 ≡
부산발레시어터 9. 24(토)



≡ We Brake! ≡
김설진 MOVER 10.15(토)-16(일)



≡ Amigo ≡
박규희x박종성 10. 26(수)



≡ 창수책방 ≡
창작뮤지컬 10.28(금)-30(일)



≡ 탈춤은 탈춤 ≡
정가악회·고성오광대 12.7(수)-8(목)



≡ 아가멤논 ≡
천하제일 탈공작소 12.17(토)-18(일)



≡ 나겸 싱어게인2 ≡
성탄특집 재즈콘서트 12. 21(수)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남명산업개발(주)
NH농협 경남본부
(주)무학
(주)센트랄
우수AMS(주)
(주)인신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로지

이사사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경남오페라단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창원대학교 음악과
창원상공회의소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주)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주)정일
(주)지엔티
청호환경산업(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I(주)

가야BS(주)
가야오페라단
(주)거명인텍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향코리아
(주)고구려
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건설(주)
광신고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술개발
(사)경남기독교문화원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주)남광디씨텍
남양매직(주)
뉴성운관광
늘푸른 요양병원
(주)다우링에너지

당당한방병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주)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주)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주)대종이엔에프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주)대호테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도원리사이클링

(주)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주)
디케이락(주)
라온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복성산업
(주)사릭
사보이호텔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상화도장개발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씨노텍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주)엔지피
영광산업(주)
(주)영남엘피씨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주)예술상점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주)월템
유림건설(주)

윤희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주)
(주)이앤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주)줄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에스비
진해성모병원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아의료재단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추고쿠상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케이조선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쿠쿠홈시스(주)
태광실업(주)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주)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벨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현대로템
흥일기업(주)
STX엔진(주)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찾아가는 공연_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_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전달합니다.
지정기탁_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컨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대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 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경마 백 년의 역사 천 년을 향한 또 다른 시작!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구매상한선 준수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

www.kra.co.kr | 대표전화 1566-3333

무림, 종이 그 이상을 꿈꾸다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

- + 국내 최초 인쇄용지 대량 생산
- + 국내 최초 펄프 생산
- + 국내 유일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 + 전 세계 105개국 수출



From 2002 to 2022



대한민국 항공 전력의 출발점이 된 T-50의 초도비행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으로 진입하게 한 T-50의 초도비행에서 첨단 항공산업을 견인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초도비행에 이르기까지 KAI의 역사는 가슴 벅찬 도전의 연속입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행복한 **경남**을 바라는 **경남은행**의 마음

당신이 웃으면 경남도 웃습니다
경남의 행복 중심에 언제나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MECENAT
with you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